

사회학 고전읽기 III 제2강

헤게모니와 아메리카주의

안토니오 그람시의

<옥중 수고 1>

김 호 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그람시와 서구 현대사

안토니오 그람시 (1891 - 1937)	당시 서구의 상황
토리노대학 입학 (1911)	미국 포드사 컨베이어 벨트 도입 (1913)
칼럼니스트 등 사회활동 본격화 (1915)	제1차 세계대전 발발 (1914)
이탈리아 공산당 창당 (1921)	러시아 혁명 발발 (1917)
공산당 서기장, 하원의원 선출 (1922)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출범 (1919)
파시스트정부에 의해 체포, 수감 (1926)	이탈리아 무솔리니 정권 장악 (1922)
20년 4개월 5일 선고 (1928)	세계 대공황 발발 (1929)
뇌일혈로 사망 (1937)	미국 루즈벨트 정부 등장 (1933)

그람시의 재발견

- 1970년대의 ‘그람시 르네상스’

- 1) 국가론

- 시민사회, 헤게모니 개념을 통해 자본주의 국가에 대한 분석

- 2) 문화분석

- 헤게모니 / 대항헤게모니 개념을 통해 자본주의 문화의 재생산에 대한 분석

- 3) 사회운동

- 대항헤게모니, 진지전 개념을 통해 사회운동 패러다임의 구성

- 4) 자본주의론

- 포드주의, 미국주의 개념을 통해 전후 포드주의 축적체제에 대한 분석

‘옥중수고’

- 감옥에서 집필한 32개의 수고 (1926-1935)
- ‘옥중수고 선집’은 1971년 Quintin Hoare와 Geoffrey Smith가 <옥중수고>를 편집해 영어로 출간한 저작.
- ‘옥중수고 1’ : 정치편(현대의 군주, 국가와 시민사회, 미국주의와 포드주의)
- ‘옥중수고 2’ : 역사와 문화의 문제(지식인, 교육에 관하여, 이탈리아 역사에 대한 수고), 실천철학(철학 연구, 마르크스주의의 여러 문제)

시민사회란 무엇인가 (1)

- 그람시는 시민사회를 토대가 아닌 상부구조의 한 영역으로 이해
 - 그에 따르면, 상부구조는 강압의 영역인 좁은 의미의 국가(정치 사회)와, 동의의 영역인 ‘사적’ 이라고 불리는 유기체들의 총체로서의 시민사회로 구성.
 - 국가와 시민사회는 “한편으로 지배집단이 사회 구석구석에서 행사하는 헤게모니 기능과 다른 한편으로 국가와 법률상의 정부를 통해 행사하는 직접적인 지배나 통치기능에 조응”함.
 - 그람시가 상부구조를 국가와 시민사회로 구분한 것은 부르주아 지배가 단순히 억압적 국가기구를 통해 유지되는 것만이 아니라 시민사회에 뿌리내린 다양한 제도 및 실천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간파했기 때문임.

시민사회란 무엇인가 (2)

- <옥중수고>에 나타나는 국가와 시민사회 (Perry Anderson)
 - 1) 시민사회는 국가의 대응물이다.
 - 2) 시민사회는 정치사회에 대응하는 국가의 일부다.
 - 3) 시민사회와 국가는 동일한 것이다.

- <옥중수고>에 나타나는 국가 (Christine Buci-Glucksmann)
 - 1) 두 개의 국가 개념이 공존: '엄격한 의미에서의 국가'와 '통합 국가'.
 - 2) 전자가 정치사회만을 의미한다면, 후자는 정치사회와 시민사회를 모두 포괄함.
 - 3) 자유자본주의 단계에서는 국가와 시민사회의 분리가, 국가개입적 자본주의 단계에서는 통합국가가 대응함.

헤게모니란 무엇인가 (1)

- 시민사회와 헤게모니

- 시민사회란 다름아닌 헤게모니가 관철되는 공간.
- 헤게모니 = 지적, 도덕적 지도력.
- 교회, 노동조합, 학교뿐만 아니라 언론, 도서관, 서클, 클럽, 건축, 거리시설 및 이름까지 시민사회에 포함되며, 이러한 일련의 요소들은 헤게모니를 발휘함.
- 지배계급은 부르주아 지배를 관철하기 위해 자신의 상식과 세계관 등을 피지배계급에게 주입시키는 바, 바로 이것이 헤게모니를 이룸.
- 자본주의 지배는 지배계급의 강압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피지배계급의 자발적 동의로서의 헤게모니를 요구함.
- 주목할 것은, 이러한 시민사회가 헤게모니에 맞서는 대항 헤게모니가 구축되는 공간이기도 하다는 점임.

헤게모니란 무엇인가 (2)

- 왜 헤게모니인가

- 그람시는 원시적이고 무정형적인 러시아의 시민사회와 국가가 흔들릴 때마다 안정적인 구조로 떠올랐던 서구의 시민사회를 비교하고 있음.
- 바로 이 서구의 시민사회에서는 지배계급의 헤게모니가 작동함으로써 국가를 엄호하고 있음.

- 헤게모니의 물질적 기초

- 헤게모니는 그 내부에 포섭되어야 할 집단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타협의 균형을 형성하는 것, 즉 지도적인 집단이 경제적·조합주의적 측면에서는 희생을 감수한다는 것을 전제함.
- “헤게모니가 비록 윤리적, 정치적인 것이긴 하지만, 그것은 또한 경제적이지 않을 수 없으며 경제적 활동의 결정적인 핵심에서 지도적 집단이 수행하는 결정적 기능에 근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임.

포드주의와 미국주의

- 자본주의의 새로운 양상으로서의 포드주의

- 지난 20세기 전반 미국에서 시작된 포드주의는 강압과 동의의 새로운 형태임.
- 미국주의(아메리카주의)로서의 포드주의는 테일러주의를 통해 노동자의 생산을 합리화하는 동시에 고임금 등을 통해 노동자의 생활을 합리화하려는 자본주의의 새로운 기획이자 양식임.
- 비록 불완전한 설명이지만, 그람시는 포드주의에 대한 이러한 분석을 통해 전후 자본주의의 미래를 예견하는 놀라운 통찰을 보여줌.
- 한편에서 보면 포드주의의 등장은 자본주의의 고도화인 동시에, 그람시의 시각에서 보면 자본주의 그들의 새로운 시작이라 할 수 있음.

그람시 사상의 현재적 의의

- 그람시의 사회이론적 기여

- 1) 헤게모니와 루이 알튀세르의 이데올로기적 국가 기구론
- 2) 헤게모니와 스투어트 홀의 문화 분석
- 3) 헤게모니와 밥 제숍의 두 국민 전략론
- 4) 시민사회와 니코스 폴란차스의 이중 전략론
- 5) 시민사회와 신사회운동론
- 6) 포드주의와 조절이론/포스트 포드주의론

그람시와 한국사회

- 그람시 이론이 한국사회에 주는 함의

- 이론적 측면

- 1) 시대정신과 헤게모니
- 2) 한 국민 전략 대 두 국민 전략

- 실천적 측면

- 1) 진보적 시민운동론
- 2) 진보적 문화운동론

더 읽을거리

- 안토니오 그람시, <옥중수고 2>, 이상훈 옮김, 거름.
- 안토니오 그람시, <옥중수고 이전>, 김현우·장석준 옮김, 갈무리.
- 안토니오 그람시, <감옥에서 보낸 편지>, 양희정 옮김, 민음사.
- 임영일 편, <국가, 계급, 헤게모니>, 풀빛.
- 페리 앤더슨 외, <안토니오 그람시의 단층들>, 김현우·신진욱·허준석 옮김, 갈무리.